

News

은행 대출금리 연일 하락…주담대 상단 7% 중반까지 내려 앓아

뉴스1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 5.45~7.02%로 집계… 10월 중순대비 상단 금리가 0.15%p 하락…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6일 기준 5.28~7.65%로 하락 미 연준과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 반영해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늦추겠다는 뜻 밝히며 금융채 금리 상승세 꺾여… 연말까지 대출금리 상승세 잠잠할 것 예상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이데일리

당정과 은행권, 서민 및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협의회에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 추진 밝혀…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대상으로 하되, 최종 대상은 자율적으로 결정 예정…5대 은행 수수료면제액 최대 600억원 예상

우리은행 신용대출 상품, 네이버페이 비교 서비스 입점

머니투데이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 서비스에 개인 신용 대출상품 입점… 입점상품은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새희망홀씨표'
입점하면서 개인 신용대출상품 추천 모형 도입… 대출 한도 조회하지 않아도 재직기간 및 연소득 등에 따라 가능 대출상품 추천

카카오뱅크 야심작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한 달 성적표 보니

더팩트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한 달 만에 개인사업자 고객 수 총 13만 명 돌파… 4명 중 1명인 27.7%는 업력 1년 미만… 편의성 높이고 혜택 강화한 점이 주효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출시 한 달 만에 500억원 공급액 기록하며 좋은 출발… 업력 1년 미만 사업자 비중이 10% 이상… 다만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연내 도입 무산… '자동차보험' 놓고 이견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 비교 및 추천 서비스 연내 도입 사실상 무산… 보험업계와 빅테크 업체들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울 것 예상
많은 소비자 존재와 각 회사의 상품별 가격 차이가 큰 자동차보험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의미 없다는 견해도 존재… 대형 손보사들 반대하는 중

NH농협생명, 500억 원 규모 RP 매도 "단기자금 조달 목적"

이투데이

NH농협생명, 500억원 수준의 께 매도… 사측에 따르면 단기 유동성 해결 목적 RP매도 시스템 구축… 정상상환 되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해 필요시 추가 매도 예정
RP매도는 저축성보험 판매보다 단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나은 방안… 다른 보험사들도 관심 중… 이달 안에 업계에서 조 단위 자금 유출 가능성

유동성 확보 나선 다율…'국내 1세대 VC' 매물 내놨다

한국경제

다율금융그룹, VC계열사인 다율인베스트먼트를 M&A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유동성 위기에 그룹의 모태인 알짜 자회사를 팔기로 결정
6일 기준 주가 11.01% 상승… 다율투자증권이 지분 52% 보유… 매각가로 약 2,000억원 희망… 우리금융지주와 유진그룹 등 국내 금융사가 주요 인수 후보로 올라…

돈줄 마른 증권사, ELB 발행 44% 늘려

한국경제

을 들어 지난달까지 ELB발행액 총 11조 9,982억원 기록… 전년동기대비 약 39.2% 증가…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1조 1,845억원으로 가장 많아… 현대차, 메리츠, 교보증권 순… 단기자금 시장 열어붙어 ELB를 통한 자금 조달 나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